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성경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성경연구원 각반 일제히 개강

다양해진 강좌, 평신도 양육반 개설

94년도 전반기 성경연구원 강좌가 오는 3월 5일(토) 오후 7시, 갈릴리 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일제히 개강한다. 매년 교인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성경공부반은 94년도 전반기부터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보다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주간성경공부와 교사, 찬양대원 양성부 이외에 직분자별 성경공부와 교사연장교육반이 추가됐다. 특히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2년 과정 양육훈련반을 개설한 것이 특징이다.

직분자 양육반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권찰,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실시되고, 남자 서리집사 및 안수집사는 매주 수요일, 수요일부 예배 후에 실시한다. 특히 구역장들은 우선적으로 서리집사 교육보다 구역장 교육에 참석하여 양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양육훈련반은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양육위원, 구역장, 교구일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된다. 양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가진 자로서 충현교회에 등록한지 5년 이상이 되고, 연령은 만27-40세의 연령층이어야 한다. 양육훈련반은 3월 5일 오후 5시에 베다니홀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꼭 참석해야 한다.



▲ 지난 해 성경연구원 개강예배 모습. 성경연구원은 3월5일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강좌를 시작한다.

주간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교육국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원하는 성경공부반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성경공부를 마친 사람에게는 성경 권별 이수증을 수여하며, 6학기 수료자에게는 충현교회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교사 양성부는 교회학교 교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기간은 15주이다. 매 주일 오후 3시, 화요일 저녁 7시반이 있

다. 지원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입학원서를 교육국에 제출한 자이다. 2/3이상 출석과 과제물을 잘하고, 성경을 일독한 사람에 한하여 수료가 되는데, 수료자에게만 정교사 자격증을 주며,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찬양대원 양성부는 세례교인으로서 찬양에 대한 은사와 헌신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매 주일 오후 6시20분에 실시하는 14주의 교육을 마쳐야 하며, 수료자에게는 찬양대원 자격증을 주며, 찬양대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사 연장교육은 교사의 사명의식을 강화시키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각종 이단종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질적 양적 배가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 한다. 1년 기간으로 전반기 15주, 후반기 15주 동안 매 주일 오후 3시에 교육이 실시한다.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자들 중에 3년차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즉 교사로 임명받은

지 3, 6, 9, 12, 15, 18, 21년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육대상임)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자신의 영적성장을 꾀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일”에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청년1부 겨울수련회

오늘 오후 2시 개회예배 시작으로

청년1부 겨울수련회가 오늘 오후 2시 개회예배로 시작된다. 직장인이 많아 평일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오늘(27일)부터 시작하여 28일과 3월 1일까지 연결해서 진행 실시하게 된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저녁찬양예배 후 충현기도원으로 가서 28일과 3월 1일까지 수련회를 할 계획이다. 수련회 강사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청년부 지도 현상민 목사, 성경연구원 지도 윤삼중 목사, 고등부 지도 장봉생 목사이다.

사랑부 자체 교사세미나

교회학교 사랑부는 특수아동을 다루는 특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되는바 지난 2월 21, 22일 양일간 사랑부실에서 자체 교사세미나를 가졌다. 양일간 10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장애아의 이해와 교육」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듣고 함께 토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세미나 개최

지난 24일, 국제회의실에서

선교위원회는 94년도 상반기 선교세미나를 지난 24일(목),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I, II, III, IV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I부 예배, II, III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충현교회의 선교사명과 선교전략’이란 제목으로, 노봉린 목사(ACTS교수, 세계복음주의신학연맹 총무)가 ‘충현교회와 해외선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IV부 기도회로 마친 이날 선교세미나에는 선교위원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ENGLISH WORSHIP SERVICE

THIS TUESDAY, MARCH 1, 1994, THE EWS WILL HAVE ITS ANNUAL WINTER BIBLE SCHOOL DAY PROGRAM. BUSES WILL LEAVE FROM THE MAIN BUILDING FOR THE CHOONG-HYUN PRAYER HOUSE AT 9:00 AM. THEY WILL RETURN BY 6:00 P.M. THE SAME DAY.

공동의회 소집공고

일시 : 1994. 3. 6. IV예배 후
장소 : 본당
안건 : 장로선거에 관한 건
대상 :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당회장 신성종 목사



24시간 연속기도

지난 2월 23일(수) 오전 11시에 김창인 원로 목사 내외가 연속기도회에서 기도함으로써 94년 24시간 연속기도회가 시작됐다. 교회의 전 직분자(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원, 권찰)들이 교구별로 모여 실시하게 될 연속기도회에서 기도자들은 교회와 나라와 각 교구와 각 지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사진은 기도하기 앞서 기도제목을 보고 있는 김창인 원로 목사 내외.

중

말의 정조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이단들의 난무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에 혼란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런 매일수룩 우리는 말씀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1.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소수만이 알 수 있는 비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번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을 때 비록 사람들이 그 올림픽 경기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성중계를

통해서 바로 그 순간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계가 될지 여떨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즉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죽어서 땅 속에 묻혀진 성도들도 있고, 또 살아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됩니다. 그때에 살아 있지만 그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당한 육체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에 적당한 육체가 못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든, 살아 있는 사람든 모두 변화되고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깊은 심연과 같은 불못, 지옥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유흥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3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일의 성취를 오순절로 보고 오순절 때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형적인 성취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해석은 '이 세대'를 유대 국가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오순절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폭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세 번째의 해석은 '이 세대'라는 말을 '인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대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세대가 아니라 종말의 심판 때에 살아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즉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는 구절의 해석이 어느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이 날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성도들은 완전히 해방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은 육체가 부활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육체가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완성되는 기쁨

충현강단



그리스도의 재림

(마 24:29-35)



신 성 종

<목사·당회장>

과 감격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날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로 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여관집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도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 당시 국가반역죄인만이 처형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쉐키나 구름은 마치 연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때문에 우리가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쉐키나 구름에 둘러 싸여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재림 때에는 자연계와 천체의 변화가 옵니다. 본문 29절에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 외에도 영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영계(靈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 보면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나팔소리가 어떤 나팔소리인가는 모르지만 큰 나팔소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장엄한 나팔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읍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에 알곡을 먼저 거두어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따로 모았다가 불에 넣습니다. 마치 곡식을 거두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로 재림 때 하나님은 먼저 믿는 백성들을 돌보아주십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7년 대환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성경에는 보호해주신다는 말을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도들이 들어올림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들어올림을 받는다는 말은 손에 닿지 않는다, 즉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꾀박과 고통에 의해서 짓이겨지지 아니하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무화(無花)라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잎이 파릇파릇 돌아나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서 여름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무화과가 맺힌 것을 보면 여름이, 즉 추수의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맺는 것을 보고 인류의 마지막 추수가 가까워진 것을 알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 열매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897년부터 시온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국권회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나무에는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과 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재림신앙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는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되어져가는 징조들 보면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때 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꼭 붙여잡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분별하는 영안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랑이 있는 곳 / 농아자매 간증기 ◆

나도 하나님 믿으면 듣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지 선
(예바다부)

어렸을 때 국민학교 6학년 과정을 마치고 나는 그때부터 농아인인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어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대화같이 나도 하나님 믿으면 듣고 말할 수 있나요? 저희 가정은 농아가 삼남매나 있습니다. 어려울 있을 때부터 작은 바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나 우리 오빠에게 '병어리' 하고 말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필이면 나의 가정에 병어리가 한명도 아니고 두명도 아니고 세명이나 되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다른 가정처럼 모두 말하여 즐겁게 웃고 모두 말하여 형이랑 동생들 이랑 손잡고 놀러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성남 농아교회, 충현교회 농아부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사람 많아서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철이들면서 그동안 같이 생활해왔던 전남 농아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 농아 두 형제와 같은 농아들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특히 말대꾸 하는 불효한 죄,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부탁이 있다면 비록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아들이라 공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인내하여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항상 건강과 축복으로 지켜 주시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삼남매를 낳으시고 평생을 고통받으시며 살아가셔야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강물같은 주의 평화를 넘쳐도록 마음에 채워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주 : 맞춤법이나 문장은 많이 모자라 보이지만 사랑하는 자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농아인의 이름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큰 수절없이 그대로 실습니다.

◆ 징검다리 ◆

사랑하는 집사님



그동안도 안녕하셨는지요? 열심으로 충성하시던 집사님이 멀리 떠나시고 나니 섭섭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쪽 팔을 잃은 듯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교구는 모든 식구들이 시외에 살고 있지요. 가까운 과천을 필두로 하여 안양, 군포, 의왕, 광명, 수원, 안산, 심지어 평택, 천안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에 교회를 등한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멀리 떠나신 집사님과 같이 모든 교우들이 다 귀하게 열심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구가 멀기에 당연히 장거리 심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길이 멀고 심지어 차가 막히게 될 때에는 사람이기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오가는 시간이 보통 2시간이고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히는 차 안에서 심방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항상 장거리 운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기도는 항상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겠죠?

"아름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한다면 결코 그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집사님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열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시겠죠? 금요찬양집회 시간에는 더욱 집사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 먼 길을 멀다 않고 열심으로 참석하시던 집사님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넉넉한 몸가짐으로 자리를 채우시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은 언제나 힘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원거리에 사는 교인들에게 금요집회에 참석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다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던 때도 있었다고 하셨죠? 항상 참석하시던 집사님의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리의 채움이 아니라 기도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 거리에 사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은 협력하여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멀리 계시지만 항상 영으로 기도가 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억호와 닛시!

94년 2월 2일 김찬곤 목사 드림

이 난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목회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쓰는 난입니다.

♣ 대통령을 위한 기도 ♣

4 라의 제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다.

지도자들의 현재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그들이 앞으로 다스리든지 정의로 다스리든지간에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는 우리가 모든 강건과 단장한 중에 교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일 뿐 아니라 나라에 평화와 질서가 있게 위해서이다(딤후 1:1-2).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보기도가 많을 때 의로운 정치가 일어나게 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된다. 이러한 기도는 또한 복음 전도의 패로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역사미래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세우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개혁바람에 설렘바람으로 불일듯 일어나갈 여기 적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흔해 보게 된다. 물론 대통령이 그 작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지만 "주 예수님, 대통령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



게 않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야 10가지의 참고회해 실제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 그의 개인적인 죄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깨닫도록
· 직무를 수행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재해, 지진, 용기를 구할 수 있도록

· 영적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가 정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 그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잘 지적할 수 있도록

· 이 땅에 하나님을 믿어내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회주의와 인본주의의 추세가 완전 패배하기를 위하여

· 생공의 비결과 능력의 근원으로써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그의 집무실에 존엄, 선행, 정의의 편만하도록

· 그의 통치가 이 땅의 조상과 재손에게 훌륭한 본보기로 기억되도록

·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의 태도, 행동, 동계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게 될 것을 매일 생경하도록

〈기도로 색은 삶 중에서〉



겨울어린이성경학교 가 지난 2월 23-25일 일제히 개막됐다. 영아부, 유치부와 초등 1-6부까지는 교회에서, 예비다부는 충현기도원에서(21-23일) 개최된 겨울어린이 성경학교에서 아침부터 나와 성경말씀을 배우고 즐겁게 놀며 새 친구들을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영아부 성경학교의 모습.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7일(주일) 여의도 침례교회 전도사역자 헌신예배 설교,
28일(월) 전국 교회협의회 기독교연합회 전국대회 축도(명성교회),
3월3일(목) - 13일(주일) LA 교민연합집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28일(월) '94 기도와 전도 대성회 준비대회 설교(목동아이스링크),
3월 1일(화) 3.1절 민족화합 기도회 및 세미나 축도
2.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24시간 기도회에 참여하는 분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새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을 내려 주소서.
5. 구역의 일꾼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부서를 찾아서 ◆

교회학교 / 사랑부

4~31세의 장애자들의 모임 조그만 변화만으로도 큰 기쁨과 감격을 맛 보는 곳

교사들의 사랑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교사 한 명이 학생 한 명을 지도

사랑부는 아침일찍부터 부산하다. 자원 봉사로 수고하는 사랑부 차량담당 교사는 새벽부터 나와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돌아 사랑부 학생들을 태우고 교회에 도착한다. 아마 처음으로 사랑부에 가본 사람은 썩 놀랄 것이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일어나고 교사들은 그들을 돌보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면 그런 중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서 예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간혹 예배 중에 일어나서 이리 저리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헌금시간에 학생들이 헌금위원이 되어 헌금했다. 불편하고 자유한 몸이지만 헌금하는 동안 참으로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교회학교 사랑부는 교회설립 3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1988년 9월 10일 교사 17명과 학생 18명이 모여서 개교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

'구제' 부문이 충현교회의 목표로 정해지면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자는 뜻에서 정신 및 지체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 사랑부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특수분야' 이기에 전문적인 교육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야 '교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사회에서도 도외시하는 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교회학교'로서의 '사랑부'는 글자 그대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이 없아도 '사랑' 그 자체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로 넉넉히 꾸려 나가고 있었다. 학생 100여명에 교사가 100여명, 그야말로 1:1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기가 맡은 학생을 자기의 친동생이나 자녀같이 돌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것을 확인할 때까지 조금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고 일일이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한 때는 학생을 잃어버려 전 교사가 나서서 찾았지만 못찾고 집에 전화하니 그 학생의 어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롯데월드 갔을 겁니다. 그곳을 좋아하거든요'라고 대답해서 롯데월에 가서 학생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신이 입고 있던 겹옷을 챙기지 않아서 집에서 항의전화가 오기가 심상이고, 운동화를 잃어버려 운동화를 구매 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들을 주일에 교회에까지 태우고 오는 일과 끝나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라고 한다. 현재 12명의 차량자원봉사자가 있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새

벽부터 나와서 오후시간까지 봉사하기에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서로 도와가며 감사하게 봉사한다. 그러기에 사랑부는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지도 모른다.

사랑부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만 4세부터 31세까지로 이들중 뇌성마비가 9명(6%), 정신박약 76명(51%), 자폐증 14명(9%), 몽고니증 27명(18%), 정서장애 16명(11%), 신체장애 8명(5%)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교사들중에는 대학부 회원과 청년부 회원들이 꽤 많다. 이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힘센 학생들을 담당한다. 어떤면에서 사랑부는 사랑부 자체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 곧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중등부에서 사랑부를 찾

랑부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이다. 집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교회에 나갈 수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변화가 그들 속에서 찾아질 때 그들의 기쁨과 감사는 대단하다. 그래서 심심찮게 사랑부 교사실에는 학부모들이 고마움으로 전해주는 간식들도 있다. 그들은 조그마한 변화에도 감격을 한다.

사랑부 부장 송환창 장로는 '처음에 사랑부에 올 때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나 걱정스러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예배 시간에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꿈같은 일'이라고 하며 교사들의 사랑이 이렇게 변화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동안 예배후 분반공부 시간에 교재가 없었지만 지난 해부터는 총회 교육부에서 발간한 계단공과를 사용한다. 지난해에는 유치부용 공과를 가지고 했고, 금년에는 '유년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랑부는 부장에 송환창 장로, 지도에 임성한 목사, 부장에 이병욱 집사, 손홍숙 권사 외에 100여명의 교사와 4세 - 31세까지의 100여명의 학생이 있다.

우리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로 코 앞에 두고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하는 '사랑부'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사랑부, 예비다부(농아인 대상), 조기교육원 등 특수교육기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특수교육이 담당한 교사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일 교사운동'이라도 펼쳐서 이런 부서에서의 일하는 경험들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심리학이나 물리치료사, 의료관계에 있는 사람이 교사로 왔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아도 사랑부는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천녀와 같이 돌보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형수>

▲ 사랑부의 예배장면



아와 함께 놀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중학생들은 '처음에는 다소 무섭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사랑부에서는 더 말할나위없이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옆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충현교회 사